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부안군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8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3% 하락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부동산공시기획팀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2023년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4년 축산악취 개선지원 공모사업 추진

정읍시는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산악취개선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공모사업에 공모해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지원 분야는 분뇨처리개선 분야, 악취저감분야, 경축순환 활성화 분야로 축산부뇨처리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별 개별 처리시설 강화를 통해 축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악취 저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등 체계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에 대한 개별농가 사업 신청은 사업대상자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확보 현지 전략회의

심덕섭 고창군수, 행안부·농림부 찾아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현안 건의



고창군이 세종시 현지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26일 오후 세종시 현지에서 열린 회의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17개 부서가 참석해 핵심사업에 대한 부처 반응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고창군 공무원 50여 명은 정부세종청사로 일제 출장을 나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고창군 사업이 중앙부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심덕섭 군수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 김성호 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회룡 자연 재해위험 개선구역 정비사업과 100억 원 규모의 육산 가뭄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아래 식 과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2024년 농

촌협약 사업에 대해 고창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촌협약은 사업비 428억원 규모이며 국비 300억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다.

이후 환경부 자연보전국 김종우 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탐사로 운곡습지센터 건립사업 지원(국비 40억원),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국비 15억 원) 등 사업에 대해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지난 4차례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통해 90건의 사업을 발굴했

으며, 총사업비는 4466억원이며 이중 국비·도비는 2750억원 규모다. 군은 발굴된 사업을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창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총력전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레일관광개발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상품 출시

고창군, '감성 자국 고창 STORY 기차여행' 운영

고창군이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업해 '감성 자국 고창 STORY 기차여행'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로 운영되는 특별열차 상품으로 5월 6일 서울역을 출발해 정읍역에서 고창으로 도착하는 상품이다. 고창에 도착하면 고창전통시장에서 고창시랑 상품권으로 고창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고창전통시장을 즐기고 고창읍성으로 이동해 철쭉꽃이 만개한 고창읍성을 한 바퀴 돌며 딥섬놀이도 체험, 이후 천년고찰 선운사까지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실속만점 관광상품이다.

고창군은 출시기념 이벤트로 고창사랑상품권 1만원을 텁승객에게 제공한다. '감성 자국 고창 STORY' 기차여행 상품은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은 1인 7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고창군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코스를 발굴해 관광열차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5월에는 싱그러운 청보로별과 2023~2024 한국관광 100

선으로 선정된 고창 운곡 탐사로 습지를 방문하는 여행상품도 출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축산악취 줄인 '깨끗한 축산농가' 11개소 지정



고창군이 26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1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정서 및 소독점검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지질적인 노력으로 축산악취를 줄인 깨끗한 환경의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정 후 5년간 유지되며 연 2회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고창군은 현재 96개의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신뢰하고 상생하는 축산농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축산농가 11개소로 디원농장(한육우), 용산농장(한육우), 엔학고대(오리), 이틀농장(양계), 민우 농장(한육우), 대림목장(한육우), 중우 축산(한육우, 신립면), 중우축산(한육우, 부안면), 동희농장(한육우), 서당 골농장(한육우), 더큰농장(한육우) 등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 책의 날' 장미꽃 선물

정읍시립중앙도서관,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성황리 마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주간(4.12. ~ 18.)', 2023 세계 책의 날(4월 23일) 등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정승익 작가 강연 △'Music radio movie' 코리안 아츠 브라스 양상을 △'나는 나다' 토론회, 우리가 먹는 약 어떤까요? △'정읍시민 박정민' 시회전 △향기로운 도서관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23일 저녁에는 2023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한민국 글관악기 흙보대사인 '코리안 아츠 브라스'의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더불어 도서관이 비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어촌공 부안, 2023년 물관리현장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용표)는 26일 부안KFC관련설명회에서 김정기 도의원과 이운성충원운영대의원, 수리감시원, 농업인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물관리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문열 산업안전보건공단국장을 초빙해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영농기 전 농업인 민원사항 청취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주요사업내용과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진행했다.

또한 매년 지속되고 있는 기상야변, 수자원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물 관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농촌용수 관리의 중요성과 2019년 6월 물 관리 기본법 시행 등 통합 물 관리 정책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용표 지사장은 "물 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며 "유지관리시설의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을 성실히 수행해 블 기반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7종 공급



정읍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유용미생물 7종(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클로렐라, BT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년에는 1,246농가에 160톤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촉진 및 품질향상, 비료 효율성 증대, 기축 장내 소화 흡수율 향상 등의 효과로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 4종은 비료로 등록되고 3종은 보조료 성분등록을 통해 농업용과 축산용을 구분 생산해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또한 키오스크 도입으로 공급 결재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종군관리, 생균

수 측정 등 품질검사를 통하여 평균 108~109(1~10억마리)의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다.

요즘 시기에는 고추 등 밭작물 정식 시기에 맞춰 퇴비와 혼합하여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정식 시 뿌리 발근, 활착에 미생물을 살포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